‘산은 사람을 기른다’

윤제학 글 / 손재식 사진

도피안사 / 1만2천원

# 문학으로 승화된 백두대간 종주기

## 국토 등줄기 어루만지며 명상·깨달음 미려한 문체·책 갈피마다 풍광 함께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도상거리 약 1,625km) 이 땅의 등뼈를 이루는 산줄기, 바로 백두대간이다. 크고 작은 산들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 그 이상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산은 사람을 기른다>는 백두대간이 우리 삶의 구체적 터전인 산과 물의 관계가 빚어낸 우리 땅의 실체에 대한 육친적 발견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이해하는 일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 책은 현대불교신문 취재1부장이자 동화작가인 윤제학 씨와 사진가 손재식 씨가 1999년 5월 31일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2001년 9월 10일 남녘 백두대간의 마지막 고개인 진부령을 지나 금강산의 남쪽 봉우리인 향로봉에 이르기까지 2년 4개월여에 걸친 종주의 결과물이다. 한 번에 내달리면 한 달 남짓이면 되는데도 아주 느리게, 계으름까지 피우면서 종주를 했다. 느린 산행을 통해 산과 교감을 나누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 낸다.

“하늘에 떠 있는 섬 하나. 천왕봉! 하늘을 비집고 선 것도 아니고 하늘이 그만큼 물러나 있지도 않았다. 마치 깍지 낀 손가락처럼, 하늘과 땅은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본문 ‘지리산 편’에서)

그동안 백두대간 종주에 대한 정보·안내서, 체험기, 생태보고서까지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었다. 이 책도 백두대간 종주기라는 데는 기존의 책들과 맥을 같이 하지만, 백두대간을 인식하고 서술하는 데는 앞선 책들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영화 ‘비트’ ‘태양은 없다’의 시나리오 작가 심산은 이 책의 표지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윤제학의 글에서 종주산행을 위한 정보만을 찾는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그의 글은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어루만지면서 시종일관 명상과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손재식의 사진에서 풍광의 아름다움만을 찾는다면 이 역시 손끝만 보는 격이다. 그의 사진은 풍광의 갈피마다에 숨어있는 애틋한 존재의 노래들을 오롯이 포착해 낸다.” 이렇듯 이 책은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예술적 차원으로 백두대간에 접근하고 있다. 작은 생명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심미안이 미려한 문체로 묘사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 책 vs 책

‘즐거운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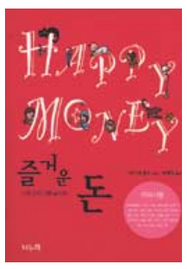
다카키 유코 지음 / 구혜영 옮김

나누리 / 8천원

‘돈과 복이 굴러드는…’

이경선 엮음 / 박미경 옮김

마당넓은집 / 8천7백원



## 돈에 얽힌 이야기

요즘 사람들은 항상 돈, 돈, 돈 한다. 삶의 목적이 오로지 돈 뿐인 듯하다. 주말이면 인생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복권방에 줄을 서고, 카드 빚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늘어만 간다. 도대체 돈이 무엇 이길래, 이렇듯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가.

<즐거운 돈>과 <돈과 복이 굴러드는 행복한 이야기>는 돈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다. 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즐거운 돈>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돈의 은밀한 내면을 속속들이 파헤친 돈에 대한 일종의 명상서라 할 만하다. 사람이 얻는 돈과 나가는 돈은 실제로 그 사람의 성격과 에너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돈도 필요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진다고 말하는 저자 다카키 유코는 이 책에서 즐거운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거운 인간이 되라. 둘째, 돈에 대한 상념을 버리고, 돈을 쓸 때 갖는 자신의 상념에 주의하라. 셋째, 돈이 없더라도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베풀라. 베푸는 마음을 내면 그 에너지가 순환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돈과 복이 굴러드는 행복한 이야기>는 작가 이경선씨가 돈과 복에 얽힌 따뜻한 이야기,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88편을 묶은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돈과 복이 굴러든다’ ‘사람을 움직여야 세상을 얻는다’ 등 주제별로 나눠진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무조건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은자 기자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계미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신비의 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743-02-563237 정해철 금액: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문주소성명을알려주시면우체국등기로전국어디나받아점안식을하고사용하실수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존경하는 스님께 최고의 보시는바루입니다

세계최고급 名品

흑단무늬목바루

베트남 국민영웅 공예가 NGUYEN BACH KHOI 작품

세계적名品 흑단 무늬목 바루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나무에서 氣와 원적외선이 상온에서(현재온도) 발산되는 나무가 흑단 무늬목이다. 名品만을 고집하는 금강바루사에서 베트남의 국민영웅 공예가 연위엔 박 코이(65세)작품으로 200set가 제작되어 인연과 연분으로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할 불자님을 기다린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건강과 행운을 안겨주는 나무로 부처님께서도 사용하신것으로 전래된다.
흑단 무늬목 바루는 氣와 원적외선이 발산되어 음식을 담아 놓아도 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흑단무늬목은 일곱번을 삶아 그늘에서 건조시킨 다음 바루를 만들어 다시 한번 삶은 다음 정조 작업을 한 후 바루에 일곱번의 옻칠을 해야 만이 흑단무늬목 바루가 탄생된다.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할 인연의 불자를 기다리고 있다.

흑단무늬목 바루문의 (02)722-0880

※ 베트남에서 직수입한 흑단목108염주를불자님들께 보시할흑단목 108염주를 사찰에계신 스님께주문예약 받습니다.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붕어는 1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원에서 검증을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농협:143-12-049474 송명화